

도시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규모의 결정요인\*  
- 일반계 고등학생의 과외사교육비를 중심으로 -

Factors Which Determine the Amount of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s of Urban Households in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Extra-class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s of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석사 유형선  
인하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윤정혜

Major in Home Econom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ha University  
M.A. : Hyung-Sun Yoo  
Dept. of Consumer, Child, and Family Studies, Inha University  
Professor : Jung-Hai Yoon

〈목 차〉

- |                  |            |
|------------------|------------|
| I. 문제의 제기        | IV. 결과와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 론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Relationships between socio-demographic variables and parents' education investment motivation variables and extra-class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were examined using a sample of 602 households in Incheon, Korea. Tobit analysis was used. Signal-cognitive motivation, parents' duty motivation, household income, housing asset, father's occupation class, and number of children had significant effects on extra-class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on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To alleviate

\* 본 연구는 1997년도 인하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overspending in extra-class private education, diploma pursuing society has to be changed and formal school education need to be properly functioning. Finally, parents seek new child education paradigm for the creative labor demand in the next millenium.

## I. 문제의 제기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국가적 차원과 개별 가계차원에서 사교육비의 급속한 증가현상에 대한 분석과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8년 현재 연간 사교육비 총량규모는 29조 3784억 원으로 1994년의 17조 4640억 원에서 1.7배 정도 증대되었으며 GNP의 대비 비중도 1994년의 6.03%에서 1998년에는 약 6.5%로 높아지고 있다. 1998년 현재 한국가계는 직접교육비의 67.8%에 달하는 사부담교육비(사부담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공은배·백성준, 1994; 김홍주 외, 1998). 이처럼 현재 한국의 교육비 문제는 개별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몫이 대단히 클 뿐만 아니라 그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다.

도시가계의 교육비는 지난 10년간 1988년에 6.9%이던 것이 1997년에는 10.3%로 교통통신비(5.7%) 다음으로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비 소비수요가 정점에 달하는 40대 후반 가계에서는 교육비가 식료품비(27.3%) 다음으로 높은 구성비(17.4%)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1997). 이러한 가계의 교육비 지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사교육비 중에서 과외사교육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교육비 중에서 교재구입비, 교통비, 급식비 등의 일반사교육비를 제외한 과외사교육비의 연간 총량지출규모는 98년 현재 14조 1941억 원으로 1994년의 5조 8447억 원에서 2.4배나 증대되었으며 GNP의 대비 비중도 1994년의 1.92%에서 1998년에는 약 3.1%로 급증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공은배·백성준, 1994; 김홍주 외, 1998).

과외사교육비 지출증가의 사회구조적 원인은 무한 학력경쟁을 유발하는 대학입시제도, 잠재능력개발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실한 공교육, 학

력에 따라 교우관계, 결혼, 직장, 승진 등 각종 혜택이 결정되는 학력에 기초한 사회로 집약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한국의 부모들은 어떠한 동기에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과외사교육투자를 하게 될까?

첫째, 한국사회에서 4년제 대학졸업장, 명문대 졸업 등의 학력은 능력있는 사람을 걸러내는 신호로서 선별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는 이러한 교육의 선별기능을 확신한 결과, 자녀의 취직과 결혼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과외사교육투자의 무한경쟁을 하고 있다.

둘째, 부모의 자녀교육 투자는 자녀가 부모의 노년기에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안전성을 제공한다는 노후대비 동기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순수한 자녀사랑 동기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셋째, 우리나라 부모의 과도한 과외사교육투자는 한국과 같은 학력위주 사회에서 부모 자신이 과거에 못 배운 한을 대신하여 충족시켜 주는 대리충족 동기에서 행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녀 교육 자체를 부모의 기본도리로 인식하기 때문에 행해지기도 한다.

한편 가계의 경제적 자원 수준을 결정하는 소득, 자산, 혹은 직업계층에 따라 지적 욕구를 위한 지출에 속하는 과외사교육비의 지출의 격차가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과외사교육비의 지출의 격차는 결국 자녀 세대의 인적 자본 또는 직업지위의 격차를 가져와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소비자학 분야에서 행해진 사교육비지출에 관한 연구는 일부지역 또는 전국규모의 과외사교육비지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와 도시가계조사 또는 한국가구패널조사의 전국규모의 교육비지출 자료를 이용하여 사부담교육비 전체에 대해 분석한 연구로

대별될 수 있다.

과외사교육비지출을 중심으로 행해진 연구는 사회인구학적 변수, 교육의 선별기능 지지도, 기타 부모의 기대교육수준, 사회계층의식, 사회내 직업귀천의식, 사회내 학벌주의 인식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가계소득, 주택소유여부,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 등이 사교육비지출의 결정요인임을 밝혔으며 사교육비지출이 주는 심리적 부담감과 경제적 복지 만족도와 관계를 분석하였다(김인숙·여정성, 1996; 정영숙, 1996a, 1996b; 박미희, 1998).

전국규모의 교육비지출 자료를 이용하여 사부담교육비 전체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회귀분석 또는 토빗분석방법으로 사교육비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인적자본투자자에 주로 관심을 갖고 교육비지출의 영향요인을 밝히고 있다(문숙재·김순미·김성희: 1996; 양세정·이윤금: 1997; 김순미·김성희: 1998). 미국의 소비자지출조사 자료를 이용한 이윤금의 연구는 인적자본투자자를 전혀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인적자본투자자의 결정요인을 토빗분석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이윤금, 1997).

이 논문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기초로 하여 사교육비지출의 결정요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육비는 교재구입비, 교통비 등의 일반사교육비와 과외사교육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최근 가계의 사교육비지출 부담은 주로 과외사교육비로 인하여 증가하고 있으므로 과외사교육비에 초점을 두고 분석함으로써 가계의 사교육비지출 부담의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둘째, 사교육비지출의 결정요인으로서 기본적인 사회인구학적인 변수와 부모의 교육투자동기로 입증된 선별기능인식 동기 외에 노후대비를 위한 동기 또는 순수한 자녀사랑 동기인지 여부와 부모 자신의 교육에 대한 한을 풀기 위한 대리충족 동기 또는 부모로서 당연한 기본도리 동기인지를 추가하여 분석함으로써 사교육비지출의 결정요인을 좀 더 정밀하게 밝히고자 한다.

셋째, 일부의 교육비 지출 분석을 제외하고 현재까지의 사교육비 지출의 결정을 분석함에 있어서 사

교육비를 전혀 지출하지 않은 가계가 상당 부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분포 가정이 성립되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중회귀분석방법으로 사교육비 결정요인을 분석해 왔다. 따라서 0이하의 값이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0의 관찰값을 갖는 경우에 적합한 분석인 토빗분석을 이용하여 사교육비 결정요인을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일반계 고등학교의 과외사교육비를 중심으로 자녀성별, 자녀수, 가장의 연령과 교육수준, 직업계층, 가계의 소득, 자산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수가 도시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규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통제했을 때 부모의 자녀교육 투자동기로서 선별기능인식 동기, 노후대비/순수한 애정 동기, 대리충족/기본도리 동기가 도시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규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토빗분석을 행하여 실증분석하려고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사교육비의 개념

사교육비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우선 사부담교육비와 사교육비의 차이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사부담교육비는 교육비 부담 주체에 따른 개념으로서 부담 주체가 공공단체이면 공부담 교육비, 개인이면 사부담교육비이다. 이에 비해 사교육비는 교육비지출의 직접행위자에 따른 개념으로서 직접행위자가 공공단체이면 공교육비, 개인이면 사교육비이다. 실제로 개인 또는 가계는 입학금이나 수업료 등의 사부담공교육비와 학용품비나 과외교육비 등의 사부담사교육비 즉 사교육비를 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다(김홍주 외, 1998).

한국교육개발원이 1977년부터 1998년까지 6차에 걸쳐 행한 교육비 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교육비 개념에 의하면, 사교육비는 “공공회계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나 학생이 교육을 위하여 직접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경비로서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 학교교육 외에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사적으로 받는 교육을 위해 개인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공은배·백성준, 1994; 김홍주 외, 1998).

사교육비는 학교에 재학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출되는 교재구입비, 교통비, 수학여행비, 급식비 등의 일반사교육비와 학생 혹은 학부모의 자유의사에 따라 지출이 결정되는 과외비에 속하는 특수사교육비로 구분된다. 과외사교육비로도 불리는 특수사교육비는 특기·재능 과외비/학원비, 개인 교과목 과외비, 입시학원비, 통신 및 학습지 과외비, 취업준비를 위한 학원비, 방과후 교육활동비를 포함한다(김홍주 외, 1998).

## 2. 부모의 자녀교육 투자동기

### 1) 선별기능인식 동기

부모의 자녀교육투자 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인적자본가설과 선별가설이 있다. 인적자본가설에 의하면, 교육투자는 지식이나 기술을 전달하여 가르침으로써 사람의 생산성을 높이고 그에 따라 소득이 높아진다고 본다. 선별가설은 교육의 생산성 증대효과를 부정하고 교육은 노동시장에서 유능한 사람을 걸러내는 체(filter)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이정우, 1995).

Spence(1973)의 직무신호 모델을 통해 선별가설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는 자신의 생산성을 잘 아는 데 반하여 고용주는 노동자의 생산성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상황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주는 노동자의 학력을 생산성의 기대치를 나타내는 신호로 사용한다. 즉 고용주들은 학력이 높은 노동자일수록 유능하고 생산성이 높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때 교육은 원래 유능한 사람을 선별해내는 신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교육이라는 신호를 비용을 들여서라도 투자하여 얻는 것이 유리하다.

선별가설에 의하면, 교육은 개인적으로 유리할 수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어떠한 생산성도 높이지 않으면서 지위와 소득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학력사회를 초래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과잉투자를 유발하는 폐해를 내포하고 있다(이정우, 1995).

### 2) 노후대비/ 순수한 애정 동기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동기는 우선 자녀의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와 관련될 수 있다. 가족의 장래를 위한 「투자」로서 가정의 대를 잇는 존재로 태어난 자녀는 그 가정을 존속시키는 일과 또한 그것을 통하여 부모의 노후를 돌보기 위한 기초가 되는 자본이다(야시로, 1994). 특히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대가로 노후에 자신을 자녀가 부양한다는 암묵적인 계약이 성립되어 있었다. 이처럼 노후대비 기능을 갖는 자녀는 부모에게 토지나 건물과 같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종의 자본이다. 말하자면, 자녀는 가족의 미래를 위한 투자재로서 인식되어 자녀교육을 가계의 저축행위와 같은 노후생활 보장의 역할로 볼 수 있다(Bryant, 1990).

반면 자녀가 부모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녀 자체가 사랑스러우므로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다(야시로, 1994). 즉 자녀 자체가 생활의 목적이 되기도 하고 부모의 욕구충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부모는 순수한 애정 동기에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의 사랑에 대해 보답을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녀는 그들 부모에게 직접적으로 만족을 제공한다(Bryant, 1990).

사회가 발전할수록 자녀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는 감소하고 정서적 가치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자녀를 통해 노후의 부양이나 미래의 소득을 기대하기보다는 자녀의 성장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실증연구결과 나타나고 있다(김성희, 1995).

### 3) 대리충족/기본도리 동기

어떤 사회에서든 가족은 사회구성의 기본 단위로서 독특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 부부의 결합으로 시작되는 가족은 부부가 자녀를 출생하고, 사회가 경험하고 축적해 온 독특한 방식에 따라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기본적인 사회단위이다. 따라서 자녀를 둔 부모의 책임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식을 잘 키우는 일이다. 부모들에게 자식을 잘 키우는 일은 단지 “부모님 말 잘 듣고, 건강하며 공부 잘하여 사회에서 자신의 몫을 다할 수 있도록 키우

는 것"을 의미하지, 대가를 바라고 자식을 키우는 것은 아니다. 요즘은 자식 키우는 일의 최대 목표는 "공부 잘 시키는 일"이며, 공부 잘 시키는 일을 부모로서의 기본 도리라고 생각한다(김희복, 1992).

한편, 취직, 결혼, 인간관계에서 개인의 학력을 드러내야만 하는 학력주의 사회에서 대학 졸업장이 없는 부모는 배움에 대한 한이 매우 클 수 있다. 이와 함께 전통적으로 "가족 중의 한 사람이 잘 되면 가족 전체가 잘 된다"는 관념에 바탕을 둔 가족주의에서 나온 교육열이 자녀에 대한 사교육투자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을 가진 부모는 자녀교육을 통해서 대리충족을 느끼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자녀 교육이 주는 보상은 자녀에게 경제적, 사회적 지위 획득에서 유리하다는 점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에 대한 정신적 만족감을 제공한다는 점이야말로 부모가 사교육투자에 집착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김희복, 1992).

### 3. 사교육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고찰

소비자학 분야에서 행해진 사교육비지출에 관한 연구는 일부지역 또는 전국규모의 과외사교육비지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와 도시가계조사 또는 한국가구패널조사의 전국규모의 교육비지출 자료를 이용하여 사부담교육비 전체에 대해 분석한 연구로 대별될 수 있다.

사교육비지출을 중심으로 행해진 연구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관련요인이 사교육비지출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관련요인과 사교육비지출의 심리적 부담감 및 경제적 복지 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김인숙·여정성:1996 ; 정영숙: 1996a, 1996b ; 박미희, 1998)가 주를 이루고 있다.

김인숙·여정성(1996)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761명을 대상으로 사교육비를 학습교육비와 재능교육비로 구분하여 사교육비 지출실태와 관련요인을 회귀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재능교육보다 학습교육에 치중하여 사교육 투자를 하고 있었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 가계소득, 거주지, 자녀의 학년, 자

녀수, 기대교육수준이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며 학습교육비가 재능교육비보다 상대적으로 가계에 심리적 부담을 주는 것임을 밝혔다.

정영숙(1996a)의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율과 경제적 복지" 연구에서 대구시 중고등학생의 학부모 245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회귀분석한 결과, 소득, 교육, 사회계층의식, 사회내 직업귀천의식, 사회내 학벌주의 인식이 사교육비지출과 유의한 관계에 있으며, 소비항목 중에서 사교육비가 경제적 복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밝혔다. 또한 정영숙(1996b)은 "가계의 교육비 지출과 선별가설" 연구에서 대구와 경산의 중고등학생의 학부모 514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회귀분석한 결과, (사부담) 공교육비 지출은 인적자본이론과 관련이 있으나 사교육비는 선별가설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박미희(1998)는 만 3세부터 대입재수생 자녀를 둔 전국 5,004 가구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 소비자보호원의 '사교육비 지출실태 및 경감방안' 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자녀수, 가계소득, 어머니의 교육수준, 자녀의 학교급(초·중·고등), 거주지, 주택형태, 주택소유여부, 아버지의 직업, 어머니의 취업여부, 부모의 기대교육수준, 교육의 선별기능 지지도가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전국규모의 교육비지출 자료를 이용하여 사부담교육비 전체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회귀분석 또는 토빗분석방법으로 사교육비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인적자본투자에 주로 관심을 갖고 교육비지출의 영향요인을 밝히고 있다(문숙재·김순미·김성희: 1996; 양세정·이윤금: 1997; 김순미·김성희: 1998; 류정순·이희자1995).

양세정·이윤금(1997)은 도시가계연보 원자료를 이용하여 교육비지출의 영향요인을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교육비구성비는 증가하나 일인당교육비는 감소함을 밝힘으로써 자녀의 수와 질 간의 부적 관계가 있다는 상호작용이론을 검증하였으며, 가구주의 직업이 관리·전문기술적인 가계가 노무직 가계보다 교육비지출규모가 컸으며 자가거주가계가 비자가거주 가계보다 교육비지출구

모가 더 큼을 밝혔다. 그리고 소득, 가구주 성별, 조사 시점(월), 주부취업여부, 가구주 연령이 교육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금(1997)은 미국의 소비자지출조사 자료를 이용한 연구는 인적자본투자를 전혀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인적자본투자의 결정요인을 토빗분석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류정순·이희자(1995)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가계의 계층별 교육비, 소득에 대한 교육비의 비율, 소득탄력성 등의 모든 지표가 교육비의 증가현상과 계층간의 교육투자 격차의 심화 추세를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91년 이후 더욱 가속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교육비의 불평 등도는 소득이나 다른 어느 가계지출 비목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실증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자녀수,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 어머니의 취업여부, 가계소득, 주택형태, 주택소유여부, 거주지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교육의 선별기능 지지도 등의 심리적 변수가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자녀성별, 자녀수, 아버지의 연령, 교육연수, 직업계층, 가계의 소득과 주거자산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선별기능인식, 노후대비/순수한 애정, 대리충족/기본도리 등의 부모의 자녀교육 투자동기변수를 도시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규모를 설명하는 독립변수로 포함하였다.

###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앞에서 고찰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하여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P1-1. 일반계 고등학생자녀를 위한 사교육비 지출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P1-2. 일반계 고등학생을 둔 부모의 자녀교육 투자동기(선별기능인식 동기, 노후대비/순수한 애정 동기, 대리충족/기본도리 동기)의 평균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P2-1. 일반계 고등학생자녀, 부모, 가계의 사회인

구학적 변수(자녀성별, 자녀수, 아버지의 연령, 교육연수, 직업계층, 가계의 소득과 주거자산)는 자녀를 위한 사교육비지출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P2-2. 부모의 자녀교육 투자동기변수(선별기능인식 동기, 노후대비/순수한 애정 동기, 대리충족/기본도리 동기)를 자녀, 부모, 가계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자녀성별, 자녀수, 아버지의 연령, 교육연수, 직업계층, 가계의 소득과 주거자산)에 포함하였을 때 자녀를 위한 사교육비지출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2. 연구방법

##### 1) 자 료

이 논문에서는 인천시에 거주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그 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가계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하여 중상지역에 속하는 부평구의 B고교와 B여고, 남구의 K고 등 3개교와 중하지역에 속하는 중구의 I고, 서구의 S고등학교(남녀공학) 등 2개교를 각각 선정하였다. 1997년 8월 1일부터 15일까지 예비조사를 총 30부 실시한 것을 기초로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용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본조사는 1997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였다. 총 84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여 655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부실기재를 제외하고 602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 2) 변 수

이 논문에서 사용한 사회인구학적 변수, 부모의 자녀교육 투자동기, 과외사교육비 지출규모 등 주요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이 중 과외사교육비 지출규모는 학생용 질문지에서 응답하도록 했으며, 나머지 부분은 학부모용 질문에 응답하도록 했다.

사회인구학적 변수에는 자녀성별, 자녀수, 아버지의 연령, 교육연수, 직업계층, 가계소득, 주거자산이 포함되었다. 토빗분석에서 자녀성별이 여자인 경우, 직업계층이 신중단계층인 경우를 각각 기준변수로 하였다. 부모의 자녀교육 투자동기 변수에는 선별기능인식 동기, 노후대비/순수한 애정 동기, 대리충

〈표 1〉 변수의 정의와 측정 방법

변 수	정 의 와 측 정 방 법
사회인구학적 변수	
자녀 성별	1. 남자 0. 여자
자녀 수	X명
아버지의 연령	X세
아버지의 교육수준	1. 중졸이하 2. 고졸이하 3. 전문대졸 4. 4년제 대졸 5. 대학원이상
아버지의 교육연수	1=9년 2=12년 3=14년 4=16년 5=18년
가계소득 (만원)	월평균소득 (본봉, 상여, 이자, 집세 포함)
주거자산 (백만원)	주택형태에 따른 평당 평균시세(단독: 250만원, 아파트·연립: 350만원, 무허가 주택: 50만원)에 주택소유형태에 따른 가중치(자가: 1.0, 전세: 0.5, 월세: 0.25)를 곱하여 주거자산을 계산하였음.
아버지의 직업계층	1. 중상계층: 전문직(교수, 의사, 판검사), 경영관리직(중소기업사장, 대기업업체 고위간부) 0. 신중간계층: 일반공무원, 은행원, 전문기술직(연구원, 정치인, 교사, 예술가) 1. 구중간계층: 도소매업자, 요식, 숙박, 부동산업 1. 근로계층: 제조공, 설비공, 공장근로자, 생산감독자, 점원, 소규모 가게 주인, 조리사, 이/미용업, 개인택시기사 등
부모의 자녀교육투자 동기	
선별기능인식	① 대학졸업장 없으면 취직·결혼에 불이익 (5: 매우 그렇다 --- 1: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상위권 대학 비인기학과가 중위권 대학 인기학과보다 낫다. (5: 매우 그렇다 --- 1: 전혀 그렇지 않다) ③ 실력있으면 고졸자라도 대졸자보다 높은 자리로 승진 가능 (5: 매우 그렇다 --- 1: 전혀 그렇지 않다) ④ 실업계고교 또는 전문대 유망학과 지원이 4년제 대학 지원보다 낫다. (5: 매우 그렇다 --- 1: 전혀 그렇지 않다)
노후대비/순수한 애정	1. 노후대비: 자녀에게 교육을 많이 시키면 노후에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0. 순수한 애정: 자녀에게 교육을 많이 시켜서 자녀가 유능한 사람으로 성공하는 것만으로도 부모에게는 큰 기쁨이다.
대리충족/기본도리	1. 대리충족: 자녀에게 교육을 많이 시키는 이유는 부모님 자신이 배우지 못한 한을 풀기 위해서이다. 0. 기본도리: 자녀에게 교육을 많이 시키는 이유는 부모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과외사교육비 지출규모	(96년 9월부터 97년 8월까지의 개인과외비+그룹과외비+학원비+학습지비)/12

족/기본도리 동기의 세 변수가 포함되었다. 선별기능 인식 동기 변수는 4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4문항을 주성분분석방법으로 요인분석한 결과 하나의 요인만 추출되어 4문항의 변수값을 합

산하여 선별기능인식 동기 변수값으로 하였다. 노후 대비/순수한 애정 동기 변수는 이항 척도이며 노후 대비동기에 답하면 1점, 순수한 애정동기에 답하면 0점을 주었다. 대리충족/기본도리 동기 변수도 이항

척도로서 대리총족에 답하면 1점, 기본도리에 답하면 0점을 주었다. 이 논문의 종속변수인 과외사교육비 지출규모는 일반계 고등학생 자녀 한 사람에게 96년 9월부터 97년 8월까지 지난 1년간 개인과의, 그룹과의, 학원수강, 학습지구독을 받은 해당 월별과 월평균 개인과의비, 그룹과의비, 학원비, 학습지비를 학생에게 기입하도록 한 후, 개인과의비, 그룹과의비, 학원비, 학습지비 각각의 개월수와 월평균비용을 곱한 후 12개월로 나누어 구하였다.

### 3) 실증연구모형과 분석방법

이 논문의 실증연구모형은 과외사교육비 지출규모의 값이 0인 경우가 9.1%이므로 0이하의 값이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0의 관찰값을 갖는 경우에 적합한 분석인 토빗모형으로 하였다.

$$Y^* = \beta_0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beta_4 X_4 + \beta_5 X_5 + \beta_6 X_6 + \beta_7 X_7 + \beta_8 X_8 + \beta_9 X_9 + \beta_{10} X_{10} + \beta_{11} X_{11} + \beta_{12} X_{12} + \varepsilon \quad (3.1)$$

$Y^*$ : 최적 과외사교육비 지출규모(잠재값)

$X_1$ : 자녀성별(남자)

$X_2$ : 자녀수

$X_3$ : 아버지 연령

$X_4$ : 아버지의 교육연수

$X_5$ : 아버지 직업계층(중상)

$X_6$ : 아버지 직업계층(중중간)

$X_7$ : 아버지 직업계층(근로)

$X_8$ : 가계소득

$X_9$ : 주거자산

$X_{10}$ : 선별기능인식동기

$X_{11}$ : 노후대비(1)/순수한 애정(0)

$X_{12}$ : 대리총족(1)/기본도리(0)

$\varepsilon$ : 오차항

$$Y = Y^* \quad \text{if } Y > 0 \\ Y = 0 \quad \text{if } Y \leq 0 \quad (3.2)$$

$Y$ : 과외사교육비 지출규모의 관찰값

$Y^*$ : 최적 과외사교육비 지출규모(잠재값)

자료의 분석은 SPSS for Windows release 7.5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교육비 지출현황, 부모의 자녀교육 투자동기 관련문항의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LIM-DEP version 7.0을 이용하여 토빗분석을 행하였다.

## IV. 결과와 논의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이 논문의 실증분석을 위해 조사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에 요약되어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며 가계의 평균 자녀수는 2.2명이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47.2세이며 아버지의 50% 정도가 40대 후반이었다. 아버지의 평균 교육연수는 13.2년이며 고졸 학력인 경우가 52%로서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직업계층을 보면, 화이트 칼라에 속하는 신중간계층이 35% 정도로 가장 많았고 소규모 자산을 가지고 자영업을 하는 구중간계층이 30%, 블루칼라에 속하는 근로계층이 28%이었으며 중상계층도 7%정도 되었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284만원이었으며 최빈 가계소득은 150만원에서 250만원 범주에 속했다. 이것은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계로 인하여 평균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형태에 따른 평당 평균시세(단독: 250만원, 아파트·연립: 350만원, 무허가주택: 50만원)에 주택소유형태에 따른 가중치(자가: 1.0, 전세: 0.5, 월세: 0.25)를 곱하여 주거자산을 계산한 결과, 인천시 일반계 고등학생을 둔 가계의 평균 주거자산은 9,500만원이었으며 최빈 주거자산은 5천만원에서 9천만원 범주에 속했다.

### 2. 과외사교육비의 지출현황

인천시의 일반계 고등학생의 과외사교육비의 지출현황이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개인과의와 그룹과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602)

변	N <sup>a</sup>	구 분	% (n)
자녀성별	601	남	50.6(304)
		여	49.4(297)
자녀수	597	평균(SD)	2.2(0.59)
아버지 연령	571	39 - 45	35.0(200)
		46 - 50	49.9(285)
		51 - 65	15.1( 86)
		평균(SD)	47.2(3.8)
아버지 교육수준	581	중졸	9.1( 53)
		고졸	51.5(299)
		전문대졸	11.2( 65)
		대졸이상	28.2(164)
아버지 교육연수		평균(SD)	13.2(2.3)
아버지 직업계층	579	중상계층	7.1( 41)
		신중간계층	35.1(203)
		구중간계층	29.7(172)
		근로계층	28.1(163)
가계소득 (만원)	590	0 - 150미만	12.7( 75)
		150 - 250미만	45.3(267)
		250 - 350미만	22.5(133)
		350 - 500미만	10.2( 60)
		500 이상	9.3( 55)
		평균(SD)	283.6(176.2)
주거자산 (천만원)	527	1 - 4	10.6( 56)
		5 - 9	45.5(240)
		10 - 14	32.4(171)
		16 - 40	11.4( 60)
		평균(SD)	9.5(5.1)

<sup>a</sup> 문항별 무응답을 결측값으로 처리하여 N에 차이가 있음.

외만을 포함한 과외사교육비1은 전체가계의 25.6%가 지출하고 있었으며, 지출가계만의 월평균 과외사교육비1은 14만 4천원 이었다. 과외 또는 (동시에) 학원수강을 하고 있는 과외사교육비2는 전체가계의 71.3%가 지출하고 있었으며, 지출가계만의 월평균 과외사교육비2는 11만 7천원 이었다. 과외, 학원수강 또는 (동시에) 학습지구독을 포함한 과외사교육비3은 전체가계의 90.9%가 지출하고 있었으며, 지출가계만의 월평균 과외사교육비3은 19만 7천원이었다. 과외사교육비를 지출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9.1% 정도되었다.

### 3. 부모의 자녀교육 투자동기수준

인천시의 일반계 고등학생 부모의 자녀교육 투자 동기 수준이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4년제 대학 졸업장과 같은 학력이 노동시장에서 유능한 능력을 나타내는 신호로 작용한다고 믿는 교육의 선별기능동기는 평균 13.4점으로서 중간값인 12 점 보다 약간 높았다. 부모의 자녀교육투자의 노후 대비/순수한 애정 동기 수준은 평균 0.07점으로 극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99.93%)의 부모가 순수한 애

〈표 3〉 일반계 고등학생의 과외사교육비 지출현황

(N=602)

과외사교육비 구 분	전체가계/ 지출가계	지출여부 % (N)	사교육비 지출규모(만원)	
			평균(SD)	범위
과외사교육비 1 (과외비)	전체가계	100.0(602)	3.4( 8.2)	
	지출가계	25.6(154)	14.4(11.5)	1.3 - 58.8
과외사교육비 2 (과외·학원비)	전체가계	100.0(602)	8.3(10.8)	
	지출가계	73.3(441)	11.7(11.4)	0.3 - 80.8
과외사교육비 3 (과외·학원·학습지비)	전체가계	100.0(602)	17.9(15.4)	
	지출가계	91.4(550)	19.7(15.0)	0.3 - 115.8

〈표 4〉 부모의 자녀교육 투자동기수준

변 수	문항수	N	평균(SD)	범위
선별기능인식	4	580	13.39(2.60)	5-20
노후대비(1)/순수한 애정(0)	1	590	0.07(0.25)	0- 1
대리충족(1)/기본도리(0)	1	584	0.20(0.40)	0- 1

정 동기에서 자녀교육투자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의 자녀교육투자의 대리충족/기본도리 동기 수준은 평균 0.2점으로 20% 정도의 부모는 부모 자신의 못 배운 한을 풀기 위해서 자녀교육투자를 하고 있었으며, 그 외의 대부분(80%)의 부모는 부모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교육투자를 하고 있었다.

#### 4. 과외사교육비지출규모의 결정요인

도시가계의 과외사교육비지출규모의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기 위해 토빗분석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토빗분석은 모형1과 모형2의 2단계로 행해졌다. 모형1에서는 가계의 사회인구학적 변수가 과외사교육비지출규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았으며, 모형2에서는 모형1에 부모의 자녀교육 투자동기 변수를 추가하여 과외사교육비지출규모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았다. 모형1과

모형2의  $x^2$  값은 각각 73.982 (df=9), 81.197 (df=12)로서 모두 .001 수준에서 유의했으며 실증분석모형으로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모형1에서 가계의 사회인구학적 변수가 과외사교육비지출규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면, 자녀수가 많을수록 과외사교육비지출규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했으며 아버지의 교육연수, 가계소득, 주거자산이 많을수록 과외사교육비지출규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으며 자녀성별과 아버지의 직업계층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음으로 모형1에 부모의 자녀교육 투자동기 변수(선별기능인식, 노후대비, 대리충족)를 추가하여 과외사교육비지출규모에 미치는 영향이 분석한 결과, 모형1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쳤던 아버지 교육연수의 효과는 사라지고, 모형1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아버지 직업계층의 효과 중에서 근로계층이 신중간계층보다 과외사교육비지출규모가 유의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의 자녀교육 투자동기 변수 중

에서 부모의 교육의 선별기능인식 동기가 높을수록 과외사교육비지출규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으며 부모가 대리충족 동기에서 자녀교육투자를 하는 경우가 기본도리 동기에서 자녀교육투자를 하는 경우 보다 과외사교육비지출규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았다. 그리고 부모가 노후대비 동기에서 자녀에게 과외사교육투자를 하는지 아니면 순수한 애정 동기에서 자녀에게 과외사교육투자를 하는지에 대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형1의 변수에 부모의 자녀교육 투자동기 변수(선별기능인식, 노후대비, 대리충족)를 추가하여 모형2에서 토빗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교육연수가 과

외사교육비지출규모에 미치는 영향이 소멸한 것은 아버지의 교육연수와 과외사교육비지출규모와의 관계는 표면적인 관계일 뿐 실제로는 부모의 자녀교육 투자동기 변수(선별기능인식, 노후대비, 대리충족)가 과외사교육비지출규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둘째, 모형2에서 모형1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아버지 직업계층의 효과 중에서 근로계층이 신중간계층보다 과외사교육비지출규모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 것은 부모의 자녀교육 투자동기 변수(선별기능인식, 노후대비, 대리충족)가 억제변수로서 점정요인으로 작용하여 원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였던 직업계층이 과외사교육비지출규모의 차이에 유의하게 나타난

〈표 5〉 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모의 자녀교육 투자 동기가 과외사교육비 지출규모 미치는 영향의 토빗 분석 결과

독립변수	모형1 (N=501)		모형2 (N=469)	
	Parameter Estimate	(SE)	Parameter Estimate	(SE)
<b>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b>				
자녀성별(남자)	-0.498	(1.449)	-0.387E-02	(1.505)
자녀 수	-4.452***	(1.203)	-4.411***	(1.219)
아버지 연령	0.170E-01	(0.101)	0.408E-01	(0.101)
아버지의 교육연수	0.858*	(0.350)	0.710	(0.366)
아버지의 직업계층 (중상계층)	1.681	(2.958)	1.805	(2.991)
(구중간계층)	-1.358	(1.857)	-1.542	(1.901)
(근로계층)	-3.471	(1.947)	-4.606*	(1.980)
가계소득 (만원)	0.131E-01**	(0.445E-02)	0.141E-01**	(0.444E-02)
주거자산 (천만원)	0.465E-03**	(0.115E-03)	0.353E-03*	(0.159E-03)
<b>부모의 자녀교육투자동기</b>				
선별 투자재(1)			0.666*	(0.276)
대리충족(1)			-2.972	(3.114)
상 수	9.046	(7.395)	-4.243*	(2.012)
Log likelihood				
x <sup>2</sup>	-1967.248		-1836.962	
x <sup>2</sup> change	73.982***		81.197***	
pseudo-ρ <sup>2</sup>	0.0176		14.430**	
			0.0207	

\*p<.05 \*\*p<.01 \*\*\*p<.001

것임을 알 수 있다(홍두승, 1995).

셋째,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의 인적자본투자를 위한 과외사교육비지출규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은 자녀의 수와 질간의 상호작용이론이 이 논문에서도 검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녀성별에 따른 성차별이 일반계고등학생의 과외사교육비 지출에는 행해지지 않고 있었다.

넷째, 가계소득, 주거자산이 많을수록 과외사교육비지출규모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은 가계가 소유하고 경제적 자원의 차이에 따른 자녀의 사교육투자의 격차를 가져오고 있음을 실증한 것으로서 장래 세대의 소득불평등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다섯째, 부모의 자녀교육 투자동기 변수 중에서 선별기능인식 동기가 과외사교육비지출규모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은 1990년대 후반의 한국의 부모들이 학력사회에서 자녀들이 교육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동기가 자녀를 위한 과외사교육비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섯째, 대리충족 동기에서 자녀교육투자를 하는 부모가 기본도리 동기에서 자녀교육투자를 하는 부모보다 과외사교육비지출규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았다. 이것은 표본의 20% 정도에 해당하는 부모가 자신의 못 배운 한을 풀고자 하는 동기에서 자녀에게 과외사교육비 지출을 하고자 하는 열망은 높으나 그것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정도가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김영화 외, 1993).

일곱째, 부모의 자녀교육 투자동기 변수 중에서 노후대비 또는 순수한 애정 동기 여부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인천시에 사는 일반계 고등학생의 어머니는 대부분(99%) 자녀에게 노후를 기대하지 않고 순수한 애정 동기에서 자녀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과외사교육비지출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만약 조사대상을 고령층 또는 농촌지역의 부모로 했을 때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 V. 결론

지금까지 행한 이론적 고찰과 토빗분석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려고 한다.

첫째, 1990년대 후반의 한국의 부모들은 학력에 의해 취업, 결혼, 인간관계가 결정되는 학력사회에서 자녀들이 교육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동기가 자녀를 위한 과외사교육비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의 과외사교육비 지출을 더 많이 하고 있는 현상은 실제로는 그 부모들의 교육의 선별기능인식 동기가 높기 때문이다.

둘째, 가계소득과 주거자산 등의 가계의 경제적 자원과 직업계층의 격차로 인한 자녀의 사교육투자의 격차를 뚜렷함이 실증되었다. 이것은 장래 세대의 소득불평등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셋째, 자녀의 수와 질간의 부적 관계가 있다는 상호작용이론이 이 논문에서도 실증되었다. 이것은 가계의 자원제약 아래서 인적자본투자의 질적 측면이 사교육투자에서 고려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자녀성별에 따른 성차별이 일반계고등학생의 과외사교육비 지출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대학입시를 위한 일반계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남아우선 경향이 지배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이상에서 추가적인 자녀교육투자가 가계에 부담을 주는 경우에도 남아우선 경향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후 검증이 필요하다.

넷째, 대리충족 동기를 가진 부모가 기본도리 동기를 가진 부모보다 과외사교육비지출을 더 작게 하고 있었다. 이것은 부모가 자신의 못 배운 한을 풀고자 하는 동기에서 자녀에게 과외사교육비 지출을 하고자 하는 열망은 높으나 부모 자신의 경제력의 제약과 본인자신의 자신감이 약한 측면 등으로 인하여 그것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정도가 약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인천시에 살고 있는 일반계 고등학생의 부모는 자녀에게 노후를 기대하지 않고 순수한 애정 동기에서 자녀교육을 하고 있었으며 노후대비 또는

순수한 애정동기에 따라 자녀의 과외사교육비지출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대부분 순수한 애정 동기에서 자녀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본다.

위에서 도출된 결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을 하려고 한다.

첫째, 한국 가계가 부담하고 있는 과중한 과외사 교육비 지출을 줄일 수 있으려면, 우선적으로생산성 보다는 4년제 대학 졸업장, 명문대 졸업과 같은 선별기능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학력주의 사회를 개선해 가는 국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경제적 자원과 직업계층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으려면, 우선적으로 학교교육이 정상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생들의 잠재능력개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실한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공교육비 예산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투자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정책의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개별 가계 차원에서 학부모와 학생은 21세기에는 교육의 선별기능은 상실될 것이며 창의적인 인재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새로운 자녀교육관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을 인천시 일반계 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국적인 일반화를 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음을 이 논문의 제한점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김순미·김성희(1998). “자녀의 학교급별 교육비 지출: 두 자녀 가정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 129-142.  
 김영화·이인효·박현정(1993). 『한국인의 교육열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인숙·여정성(1996).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137-148.  
 김홍주·한유경·김현철·김성은·김 연(1998). 『한국의 교육비 조사연구』.  
 김희복(1992). “학부모 문화 연구: 부산지역 중산층의 교육열”. *서울대학교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  
 문숙재·김순미·김성희(1996). “자녀의 인적자본형성을 위한 교육비지출의 결정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71-184.  
 박미희(1998). “개인과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및 유형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야시오 나오히로. 이균 역(1994). 『결혼경제학』. 한국경제신문사.  
 양세정·이윤금(1997). “가계의 교육비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자녀 수와 자녀 성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8(2), 81-101.  
 이윤금(1997). “미국가계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대한가정학회지*, 35(4), 229-241.  
 이정우(1995). 『소득분배론』, 비봉출판사.  
 정영숙(1996a). “가계의 인적자본투자율과 경제적 복지: 사교육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7(1), 1-13.  
 정영숙(1996b). “가계의 교육비지출과 선별가설: 사교육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7(2), 207-222.  
 통계청(1997). 1997 『도시가계연보』.  
 홍두승(1995). 『사회조사분석』, 다산출판사.  
 Bryant, W. K.(1990).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the househo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Spence, M.(1973). Job market signaling.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7(3), 355-374.